



포천상공회의소 회장배 상생기금 마련 골프대회 “역시 전통, 나눔·화합의 굿샷”

포천상공회의소(회장 한희준)는 “제13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배 상생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5월 31일 168명이 참가한 가운데 몽베르CC에서 나눔·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고 말했다.

포천상공회의소 회장배 골프대회는 코로나19로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상생기금을 매년 포천시에 전달하는 전통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생기금 모금에는 한희준 회장 500만원, 이민형 명예회장 300만원, 강용범 수석부회장 300만원, 오석준 포사회 회장 300만원 등을 비롯 상임의원들의 성금과 식품제조업협의회(회장 윤진수)와 회원사들은 물품으로 동참했다.

한희준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기업인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상생기금은 포천시에 10,000천원, 포천시민축구단 3,000천원, 임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6,000천원을 전달하였다.

